



삼국유사 소재 한문작품 연구

A Study on Sino-Korean Literary Works in Samgugyusa

저자
(Authors) 이동근

출처
(Source) [우리말글](#) , 2000.8, 91-117(27 pages)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2000.8, 91-117(27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말글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6200>

APA Style 이동근 (2000). 삼국유사 소재 한문작품 연구. 우리말글, 91-1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0 11: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소재 한문작품 연구 *

이 동 근

<목 차>

- | | |
|--------------------|--------|
| 1. 서 론 | 4. 결 론 |
| 2. <삼국유사> 소재 산문 작품 | • 참고문헌 |
| 3. <삼국유사> 소재 운문 작품 | • 영문초록 |

1. 서 론

〈삼국유사〉의 記事는 출처와 양식 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출처 면에서 기존 역사서·각종 공식문서·금석문·사적인 기록·구전설화·개인의 의견 등으로 되어 있고, 양식 면에서 시가류·송찬류·잡명류·논변류·주소류·서독류·전장류·비지류·서사류·잡기류 등의 문체가 총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일연이 직접 창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인용했고, 혹 상이한 자료가 혼재할 경우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여 후대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삼국유사>는 사실을 중시하고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정통 역사서를 표방하고 있는 <삼국사기>에 비해 문학적으로 특히 한문문체적 측면에서 당시 한문학의 보급과 수준을 알려주는 귀

중한 자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삼국유사> 소재 설화와 향가에 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왔지, <삼국유사>의 한문문학성에 대해서는 讀에 대한 연구가²⁾ 고작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삼국유사>에는 어떠한 한문작품이 발견되고, 그 중 한국한문학사에서 거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아, <동문선> 이전 한국한문학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삼국유사>는 당시 전하던 모든 자료를 인용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체의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실시한 “<삼국유사>의 한문문체적 일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

- 1) 국내·외 文選類에 나타난 문체는 58개 문체종에 약 87개 문체명을 열거할 수 있었다.
- 2) 기존 문체분류안을 참고로 하여, 산문 8개 문체(논변류, 주소류, 조령류, 서독류, 서발류, 전장류, 비지류, 잡기류), 운문 5개 문체(잠명류, 송찬류, 시가류, 애제류, 사부류)로 분류하였다.
- 3) <삼국유사>에는 논변류, 주소류, 조령류, 서독류, 서발류, 전장류(송전, 사전, 열전, 행장), 비지류, 잡기류(역사기술, 기, 사지, 문, 록, 일기), 잠명류, 송찬류, 시가류 등의 문체명이 사용되었으나, 애제류와 사부류 등의 문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1999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1) <삼국유사>의 인용이 漢土의 문헌은 물론이고 국내의 고문적을 비교적 넓은 범위의 많은 종류를 들고 있고, 대개 일편 <삼국유사>는 述而不作으로 일관하였다.(최남선, 증보삼국유사, 민중서관, 1946. 14~20 passim)
- 2) 김주환,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백신숙, 일연의 찬시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고운기, 삼국유사의 일연 찬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 줄고, 삼국유사의 한문문체적 일 연구, 우리말글 16집, 우리말글학회, 1998. 참조.

구체적으로 <삼국유사>에는 論, 章, 史論, 致書, 奏貼, 奏, 牋文, 表文, 狀啓, 疏, 話, 書, 答, 跋, 僧傳, 傳, 別傳, 傳記, 列傳, 私傳, 年代歷, 行狀, 實錄, 碑, 古記, 古傳, 古傳記, 異傳, 鄉記, 鄉傳, 俗傳, 諺傳, 唐傳, 記, 本紀, 本傳, 別記, 古本, 一本, 或本, 別本, 秘詞, 後記, 章, 寺記, 寺中記, 地理志, 文, 錄, 日記, 銘, 頌, 讚, 詩, 偈, 歌, 曲 등 59개의 문체명이 177회에 걸쳐서 사용되었다.

4) <삼국유사>에는 논변류·주소류·서독류·서발류·전장류·비지류·잡기류·잠명류·송찬류·시가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102편의 한문작품이 보이나, 조령류·애제류·사부류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다.

“삼국유사의 편찬은 전거를 밝혀서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삼국유사>의 기록이 차용하고 있는 내용의 문장은 일연의 문장 내에서 독립성을 갖는 문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유사> 소재 설화가 완결된 설화가 아니라 때로는 설화 부스러기를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듯이, 문체명만 언급한 경우와 원 작품의 일 부분만 인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문학성을 논할 때는 그 자료가 한 작품으로 완결성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우선 <삼국유사> 내에서 일정한 문체를 선택한 모든 문장 중 유기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선정한 후, 다시 실용문 수준을 초월하여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작품을 선별하여 문학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4)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상), 참비, 1976, 115쪽.

2. <삼국유사> 소재 산문 작품

2.1. 논변류

<삼국유사>에는 논변류 작품이 9편 발견되는데, 모두가 사론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사론이란 역사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뉘집을 사관의 입장에서 논평한 문장이라는 점에서, 여타 논변류와 비교해 볼 때 독립적인 문체가 되지 못한다. 이들 작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議者曰(권1 奈勿王 金堤上) : 창작/寄褒貶

충신 김제상의 죽음은 한나라의 周荷가 항우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예와 같다는 내용으로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2) 史論曰(권2 金傅大王) : 창작/寄褒貶

김부왕이 신라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김부왕조의 사론은 신라 개국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논자는 신라 서조의 난생과 천강설의 황당함, 佛家의 지나친 팽창으로 노동력과 군사력의 감소를 초래함, 경애왕의 荒淫으로 인한 국력의 피폐 등을 열거하면서, 경순왕의 고려조 귀순은 순리요, 백성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3) 議曰(권2 仇衡王) : 창작/示異說

가락국 마지막 구형왕이 신라에 투항한 연대에 대한 두 가지 이설(①전해 오는 문헌에는 保定 2년(가락국 재위연대 520년), ②三國史에는 梁 中大通 4년 壬子(가락국 재위연대 490년)을 소개하고 있다.

4) 議曰(권3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桓桓朴朴) : 창작/明成敗

청정도량을 지킨 노힐부득보다 중생의 뜻을 따른 달달박박의 처사가 진정한 보살행이라는 권위적 주석을 시도하고 있다.

5) 議曰(권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 창작/據感慨

세상 사람이 모두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나, 깨우치고 보면 모두가 일장

춘몽일 뿐이니 불도에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議曰(권3 阿道基羅) : 창작/論推斷

담시의 행적이 아도·목호자·난타의 행적과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담시는 삼인 중 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된다.

7) 議曰(권4 良志使錫) : 창작/論推斷

종합적으로 볼 때 양지는 재주가 많고 덕이 충만한 大方家라고 인물평을 하고 있다.

8) 議曰(권4 圓光西學) : 창작/待後賢

당전과 향전에는 원광법사의 성씨·출가처·입적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김척명의 원광법사전은 운문사 개산조사 보양의 사적을 잘못 첨가했고, 이를 참고한 해동승전도 잘못되었다. 이를 밝히고자 당전·향전·원광법사전을 그대로 기술했다.

9) 議曰(권5 郁面婢念佛西昇) : 창작/示異說

향전에 의하면 옥면은 경덕왕 때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거정의 본전에 의하면 애장왕 때 사람으로 되어 있어 두 기록을 모두 남긴다.

위에서 보드시피 <삼국유사>의 논변류는 “議曰”·“史論曰”·“議者曰”이란 평어를 쓰고 있다. 9편 모두가 찬자의 창작으로 인정되나, 기사 내용과 분리시켰을 때 그 자체로서 자족성을 구비한 독립적인 문장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삼국유사>의 논변류는 史論의 범주에 머물러, 문학적 논변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논찬부의 기능은 대체로 寄褒貶(2), 示異說(2), 明成敗(1), 據感慨(1), 論推斷(2), 待後賢(1)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5) 蔡信發은 그의 “史記贊語對韓國漢文小說的影響”(한국학보 5, 민국 74. 12.)에서 논찬부의 기능을 “補逸事·敘遊歷·寄褒貶·評得失·記奇異·據感慨·明成敗·辯誣妄·論因果·足文獻”이상 10개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필자는 여기에 다 ‘待後賢·示異說·論推斷’ 3개를 추가하였다.

2.2. 주소류

<삼국유사>에는 치서가 한 편(致書報云 : 권2 문호왕 법민) 보이는데, 문무왕이 축성을 위해 장기간 백성을 동원하자, 의상대사가 정교가 밝으면 비록 풀밭에 금을 그어도 城의 효과를 거두니, 長城 구축을 위해 백성들을 힘든 노역에 시달리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일상적 고충 해결에 힘을 쓰라고 충간한 상서이다.

이는 치서의 일 부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품으로서 완결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실용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3. 서독류

<삼국유사>에는 아래와 같이 3편의 서독이 있는데, 이들 모두 인용문이다. 이들 작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寄書于太祖(권2 後百濟 甄萱) : 인용

전환이 태조에게 보낸 서간문인데, 실용문의 차원을 넘어 비유법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학적 서간이다.

2) 太祖答曰(권2 後百濟 甄萱) : 인용

전환의 편지에 대한 태조의 답신을 최치원이 작성한 것이다..

3) 并奉書(권4 義相傳教) : 인용

종남산 지엄의 문인 賢首가 探玄記를 의상대사에게 전하면서 보낸 편지로 실용문적 성격이 짙다.

이상 3편의 서간 중 전환과 최치원이 작성한 태조의 편지는 문학성이 넘치는데, 특히 후자는 최치원이 황소에게 보낸 「격황소서」에 비의할 정도로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왕건의 군사가 승승장구하는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원환이 하늘에 사무치고 정성이 해보다 깊어 독수리의 용맹성과 犬馬의 다음으로 다시 무기를 들었다. 두 번 槐柳를 고치니 땅에서는 우뢰가 되고, 물에서는 범과 용이 되었다. 尹翹을 해안에서 추격하니 갑옷이 산처

서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이편」 서문은 주체적 입장에서 한민족 시조에 대한 신성사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저 옛날 聖人이 예약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인의로 가르침에 있어, 괴상한 힘이나 난잡한 신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재왕이 일어날 때에는 符命을 안고 圖籙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사람보다 다른 것이 있는 뒤에 큰 변란이 있는 기회를 타서 大器를 잡고 대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河圖가 나오고 洛書가 나오매 성인이 나왔으며 무지개가 神母를 에워싸매 伏羲氏가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태어났음이 어찌 이상하겠는가. 이 기이편을 서두에 놓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漢南管記 彭祖遜이 지은 발문은 일반 발문과는 달리 普耀禪師를 칭송하는 시를 지은 후, 시를 갖게 된 배경을 발문으로 남긴 것으로 시화적 성격이 짙고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 내용이 “대장경을 가져올 때 큰 풍랑이 일었으나, 주문을 외워 신룡의 보호를 받았으며, 환국하여 瑞雲이 발생한 곳에 봉안하였으니 그 곳이 海龍王寺로 이 땅의 불상과 불교의 유래는 이 때부터이다.”라고 되어 있듯이 법보시와 관련한 보요선사의 행적이 집약되어 있다.

2.5. 전장류

<삼국유사>에는 승전 3편, 사전 3편, 열전 1편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타 문헌에서 인용한 글들이다. 이들 작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唐續高僧傳 13권(권4 圓光西學) : 인용, 독립성 인정

원광이 학문을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旻公의 강의를 듣고 불법에 귀의했다. 성실론과 열반경을 배워 강론하자 신자가 구름처럼 모였고, 명성이 장안에 회자되었다. 본국에서 수나라에 장계를 올려 귀국하게 한 후, 箋文·表文·狀啓 등은 모두 그에게서 나왔다. 99세에 황룡사

에서 입적하였다.

이는 당속고승전에다가 전해오는 전문 [낙태한 태아를 원광법사의 무덤에 몰래 묻자 벼락이 치며, 태아를 무덤 밖으로 내던졌다.] 과 기타 문헌(達字函)을 참고하여 [제자 안일이 범통을 이었고, 원광법사의 행적을 정리하였다.] 찬한 새로운 전이다.

2) 求法高僧傳(권4 歸竺諸師) : 인용, 독립성 인정

釋 阿離那是 正教를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불교 발상지인 천축에 가서 불경을 초하다가 70여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그 후 惠業, 玄泰, 求本, 玄恪, 惠輪, 玄遊 등의 법사가 천축으로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보지 못하거나 중국에서 입적했다.

3) 曇始傳(권3 阿道基羅) : 인용, 자족성

석 담시는 關中人으로 출가 후 요동에서 교화에 힘쓴 까닭에 고구려에 불교가 유포될 수 있었다. 北狄 赫連勃勃이 관중을 격파하고 담시를 해하려 했으나, 거꾸로 같이 부러지매 沙門을 모두 석방했다. 拓跋燕가 세력을 떨칠 때 崔浩가 불교를 시기하여 寇謙之와 척발도를 이용하여 담시를 해치려 하였으나 담시가 신이한 행적을 보이자, 척발도가 오히려 최호와 구경지를 살해하고 불교를 진흥시켰다.

4) 조신전(권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 인용, 자족성

조신은 꿈 속에서 金晰 공의 딸을 맞이 하여 40년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가난으로 자녀들을 나누어 다시 헤어질 찰나에 꿈을 켜 후 삶의 허망함을 느끼고 白業에 정진하였다.

5) 수이전(권4 圓光西學) : 인용, 자족성

원광법사는 비구니로 현신한 신의 계시에 따라 중국으로 가 三藏을 널리 배웠다. 귀국 후 외교문서를 담당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공을 세웠다.

6) 김현전(권5 金現感虎) : 인용, 자족성

김현은 假化한 호랑이를 만나 정분을 나누었다. 현세에 명이 다한 호랑이는 김현에게 공을 남기고 죽자, 김현은 虎願寺를 지원 호랑이의 혼을

천도하였다.

7) 新羅古傳(권3 三所觀音 衆生寺) : 인용, 자족성

한 화공이 중국 천자 龍姬의 은밀한 부분을 우연스레 그린 후 궁지에 몰렸으나, 관음보살상을 그려 석방된 후 신라로 와서 중생사에 대비상을 그려 많은 신자들이 그皇上(대비상)의 음덕을 보게 하였다.

전장류에 해당하는 전 작품 7편은 모두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독립적 작품으로 인정될 만큼 전 양식으로 구조적 완결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신전」·「수이전」·「김현전」의 경우는 각 작품 내에 “이 전기를 읽다가 책을 덮고 생각하니”, “安逸戶長 貞孝의 집에 고본 수이전이 있는데, 거기에 원광법사의 전기가 이렇게 적혀 있다.”, “이에 전을 지어 세상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구절 있으므로 이를 私傳으로 단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은 전의 형식에 입각하여 유기체적 구조를 가지고, 내용면에서도 인간욕망의 유한성·신의 계시에 따른 渡唐과 귀국 후 행적·人獸交婚談 등이 설화성과 창작성의 씨줄과 날줄로 교직되어 있으며, 독자에게 교훈과 쾌락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성이 소설의 경지를 넘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비지류

<삼국유사>에는 비지류로 「按我道本碑(권3 阿道基羅)」가 실려 있다. 이는 아도 출생의 비밀·출가 내력·모친의 해안·성국공주 治病·본기와 본비 차이점에 대한 논의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시피, 비문으로서 자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아도본비」를 인용한 것이지만, 비문이 가지고 있는 형식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비문의 전형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2.7. 잡기류

<삼국유사>에는 記 5편, 寺志 3편, 文 1편, 錄 1편, 制書 1편이 실려 있는데, 모두 다 인용문이다. 이들 작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白月山兩聖成道記(권3 南白月二聖 努粉夫得 怛怛林林) : 인용
하화중생의 자세로 정진하던 달달박박이 먼저 성불한 후 상구보리의 자세로 정진하던 노힐부득을 인도하여 성불시켰다.

2) 文殊寺 石塔記(가제)(권3 五臺山 文殊寺 石塔記) : 인용
白雲子라는 사람이 석탑의 영험함을 한 노인에게 듣고 남긴 기록으로, “답이 비록 순박하고 정교하지는 못하나 영험한 징험이 있어 감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3) 寶叱徒太子傳記(권3 溟州 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 인용
신라 정진대왕의 태자 보질도가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眞身이 상주하고 있는 오대산에 들어가 수도하였다.

4) 檀香壇禮佛結社文(이차돈전기 : 가제)(3권 原宗興法 厭騰滅身 224) : 인용
南澗寺의 중 一念이 결사문을 지으면서 소개한 이차돈 순교사적이다. 결사문의 일 부분에 불과하므로, 결사문이라기보다는 이차돈의 전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鉢淵石記(가제)(권4 關東楓岳鉢淵蔽石記) : 축약 인용
진표율사가 창사하고 입적한 발연수에 세운 진표의 일대기 내용이다. “이 기록에 기재된 眞表의 사적은 발연석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磬峯이 지은 것을 발취하여 기재했다.”고 하였다.

6) 寺中所傳古記(권3 臺山月精寺 五類聖衆) : 인용
월정사에 주석한 스님(자장법사-信孝居士-有緣) 소개와 신희거사의 오류 성증 상면기

7) 寺中古記(권3 靈鷲寺) : 인용
한 사람이 매로 꿩사냥을 하는데, 매에 낚인 꿩이 새끼를 안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우물 속이 피빛이 되어 있음을 보고 측은함을 느낀 충원공이 신문왕에게 보고하여 그곳에 영취사를 지었다는 創寺緣起說話

8) 金光寺本記(권5 明郎神印) : 인용

명랑사가 신인종의 시조가 되는 과정

9) 新羅別記(권1 태종 춘추공) : 유인계의 문장 인용

태종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곳에 扶餘隆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며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을 권유한 글인데, 이는 대방도독 劉仁軌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쌍방간에 군신의 맹세를 다지는 의식에서 지어진 글로서 맹서문의 전범으로 생각된다.

10) 三寶感通錄(권3 遼東城 阿育王塔) : 인용

삼보감통록에 전하는 것 중 요동성 아육왕탑의 유래 부분만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11) 制書(권2 가락국기조) : 인용

신라 30대 법민왕이 이제까지의 가락국왕들이 자신의 선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묘에 합하여 제사하라고 명한 글이다.

잡기류에 해당하는 11편의 작품은 모두 인용문이고, 혹은 축약하거나 혹은 일부분만 제시한 것으로 대부분 불교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 중 「백월산양성성도기」와 「신라별기」의 내용은 구조상 자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후자는 대방도독 유인계가 지은 것으로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결연한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그 일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성사된 취지를 다 알리니 혼인하기로 언약하고 당부하며 서약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마시고, 모든 일을 함께 두터이 하고 재난을 서로 분담하며 환란을 구휼하여 은정이 형제 같으며 임금의 말씀을 공손히 받들어 감히 잘못함이 없도록 하라...만일 위반함이 있으면...자손을 기르지 못하고 사직을 지키지 못하며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이고 종족이 보존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금석같은 굳은 誓契를 만들어 종묘에 간직하고 자손만대에 혹시라도 감히 범함이 없게 하리니 신명을 들으시고 흠양하사 복을 주소서 하였다. 피를 마시고 폐백을 제단의 북쪽에 묻고 서약한 글을 태묘에 보관하였다.

3. <삼국유사> 소재 운문 작품

3.1. 잠명류

<삼국유사>에는 잠명류로 “銘曰”(권2 駕洛國記) 한 편이 실려 있다. 이는 신라 문묘조 金官知州事 벼슬에 있던 문인이 가락국기를 짓고, 뒤에 첨부한 銘文이다. 4자 60구의 운문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대체로 김수로왕의 탄생의 이적, 치적, 후손의 영원무궁함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은 가락국 시조에 대한 칭송을 운문으로 작성하여 후대에 전승하려는 銘文의 창작의도에 충실한 문장으로 평가된다.

3.2. 송찬류

<삼국유사>에는 송류 1편(인용), 찬류 52편이 실려있다. 송류 1편은 진덕여왕이 당대종에게 바친 작품을 인용한 것이고, 찬류 52편 중 50편은 찬자의 창작이고, 2편은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이들 작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太平歌(가제)(권1 眞德王) : 인용

5언 20구의 운문으로 주위 모든 나라가 태종의 德化로 당나라에 귀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讚曰(권1 天賜玉帶) : 진평대왕이 하늘의 符命을 받고 등극했음을 암시 진평대왕이 하늘로부터 옥대를 받았으니, 그 임무가 더 무겁다는 7언절구의 시

3) 按駕洛記贊(권1 五伽耶) : 인용/탄생신화 요약
하늘에서 여섯 개의 둥근 알이 내려와 6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4언4구의 고시

4) 乃作詞誠之曰(권3 洛山二大聖 觀音正趣 調信) 창작/권계, 독자성 인정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니, 참선하여 청량세계로 가는 것이 최고라는 내용의 7언절구 2수

5) 讚曰(권3 原宗興法 厭觸滅身) : 불교 흥포의 공 예찬

원종이 만대에 통하는 법륜을 굴리고, 연축(이차돈)이 순국으로 불교를

14 우리말글(제19집)

포교시킨 것을 예찬한 두편의 7언절구의 시

6) 讚曰(권3 法王禁殺) :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

백제 29대 법왕은 살생을 금하고 왕홍사를 세웠으니 필히 도솔촌으로 갔을 것이라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7) 讚曰(권3 寶藏奉老 普德移庵) : 抑佛崇道儒의 피해

고구려 보장왕이 도교를 신봉하자 보덕성사가 전주 孤大山으로 이주하였으며,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7언절구의 시

8) 乃有讚曰(권3 迦葉佛宴坐石) : 불법의 영접성

황룡사가 여러 차례 화마에 휩싸였지만, 가섭불 연좌석만은 옛 모습대로 전하고 있다는 7언절구의 시

9) 讚曰(권3 遼東城 阿育王塔) : 아육왕탑의 의미 환기

아육왕탑을 귀신에게 제사하는 무덤으로 알고 있던 고구려인의 무지를 애석해 한 7언절구의 시

10) 讚曰(권3 金官城婆娑石塔) : 허왕후의 이주에 관한 내용 요약

수로왕비 허왕후가 파사석탑을 싣고 아유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험난한 파도와 남해의 침구도 막을 수 있었다는 7언절구의 시

11) 讚曰(권3 皇龍寺 丈六) : 신라는 부처의 옛 인연처

황룡사 장육존상은 아유타국에서 인연처를 구하고자 배에 실어 보낸 철로 주조한 것인데, 원래 신라는 일찍이 석가불과 가섭불이 주재하던 땅이었다는 7언절구의 시

12) 讚曰(권3 皇龍寺九層塔) : 황룡사 구층탑의 호국성

황룡사 구층탑이 호국사찰의 역할을 하여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13) 讚曰(권3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 천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불국

토임을 예찬

하늘에서 떨어진 사불산, 땅에서 나온 굴불산, 그리고 장인을 동원하여 만든 만불산의 유래를 찬미한 7언절구의 시

14) 有人真讚云(권3 前後所將舍利) : 普耀禪師의 공적 요약/인용

보요선사가 오월에 가서 대장경을 실어 와 해룡왕사를 개창한 업적을 찬미한 4언8구의 시

15) 讚曰(권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 신라가 원래 미륵정토임을 암시 미륵선화를 찾아 국토를 순례했던 진자사의 행적과 그 실제 顯現을 다룬 7언절구의 시

16) 讚曰(권3 難陀關濟) : 황무지에 불교 포교의 어려움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와서 백제에 불교를 전파한 것을 다룬 7언절구의 시

17) 讚曰(권3 順道鑿羅) : 고구려에 불교가 전파된 내력 순도가 진나라로부터 와서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했다는 7언절구의 시

18) 讚曰(권3 阿道基羅) : 기사내용의 압축 부처님의 십자로 고구려 모래의 집에서부터 불교가 전파될 수 있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19) 讚曰(권3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 중생과 함께 하는 보살행을 강조 전반부 설화에 나오는 노힐부득, 달달박박, 남자의 행적을 요약한 7언절구 3수

20) 讚曰(권3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 부처님의 가피 천수대비의 도움으로 득안할 수 있었다는 7언절구의 시

21) 讚曰(권4 圓光西學) : 창작/행적 예찬 비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원효의 행적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22) 讚曰(권4 良志 使錫) : 창작/행적 요약 錫杖寺 佛事 時 양지스님의 행적을 다룬 7언절구의 시

23) 讚曰(권4 歸竺諸師) : 귀축제사의 불귀의 아쉬움 구법고승이 천축으로 갔으나, 모두 불귀의 객이 되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24) 讚曰(권4 二惠同塵) : 두 스님의 신이한 행적의 의미
계율을 무시하고 僧俗을 오갔던 해숙·해공스님의 신이한 행적을 다룬
7언절구의 시

25) 讚曰(권4 慈藏定律) : 중국으로부터 불교 도입의 공적 예찬
자장율사 중국으로부터 불경·불상·의복을 도입한 내용을 다룬 7언절
구의 시

26) 讚曰(권4 元曉不羈) : 원효 塑像의 이적
화엄소를 짓고, 설총을 낳은 원효를 분황사에 모셨다는 7언절구의 시

27) 讚曰(권4 義湘傳教) : 화엄종을 개척한 의상의 업적
중국 終南山에 기거하던 智儼의 가르침을 받고 의상대사가 화엄종을
태백산에 전파했다는 7언절구의 시

28) 讚曰(권4 蛇福不言) : 華藏世界 예찬
사복이 떠난 화장세계에 대하여 예찬한 7언 절구의 시

29) 讚曰(권4 眞表傳簡) : 진표가 전한 搭儼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비판함
진표는 참선으로 미륵보살로부터 簡子를 받은 후 세상을 두루 계도했
다는 7언절구의 시

30) 讚曰(권4 心地繼祖) : 심지가 불도에 정진하여 진표율사의 대를 이음
신라 41대 헌덕대왕의 아들 심지가 불교에 정진하여 진표율사의 간자
를 받아 동화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31) 讚曰(권4 賢瑜珈 海華嚴) : 대현·법해 스님의 자연을 주재하는 놀
라운 법력
유가종 대덕 대현스님이 우물물을 솟게 하고, 화엄종 대덕 법해스님이
큰 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법력을 찬탄한 7언절구 2수

32) 讚曰(권5 包山二聖) : 창자/유적 인멸의 아쉬움
包山에 기거했던 觀機·道成 두 스님의 자취는 사라지고 고목만이 자
리하고 있다는 7언절구의 시

33) 讚曰(권5 密本摧邪) : 惑世認民하는 사이비 승려를 징계
密本과 老居士가 법력과 불도가 미진한 法揚과 因惠를 우롱했다는 7언

절구의 시

34) 讚曰(권5 惠通降龍) : 혜통이 불교에 정진하여 득룡과 치병을 자유 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신통력을 구비하였음을 찬탄

혜통이 水獺를 죽이고 悔改한 후 불교에 입문하여 중국 지방법사의 범 통을 이었으며, 그 후 신통력으로 여러 득룡을 물리친 내용을 다룬 7언절 구의 시

35) 讚曰(권5 仙桃聖母隨喜佛事) : 선도산 성모는 신라의 시조모이며, 스님에게 헌공하여 즐겨 불사를 도움

선도산 성모는 중국 황실의 여자로 동방으로 와 西蔭山 神母가 되었는데, 智惠스님에게 헌공하여 安興寺 불사를 도왔다는 내용의 5언절구의 시

36) 讚曰(권5 郁面婢念佛西昇) : 貧者 一燈처럼 成佛은 貴賤이 없음을 갈파

貴珍의 여종 옥면이 힘든 방아짚는 일을 하면서도 염불 정진하여 진신 이 되었다는 7언절구의 시

37) 讚曰(권5 懶興遇聖) : 승려가 본분을 잃고, 현세의 편안함을 추구하 는 것을 경계

國師가 된 경흥대사가 병에 걸리고, 분에 넘친 생활을 하자 聖人이 나 타나 治病과 警戒를 하였다는 7언절구의 시

38) 讚曰(권5 眞身受供) : 인간이 무지에 빠져 있을 때 진신석가나 문수 보살들이 현현하여 깨우쳐 줌

효소왕이 망덕사 낙성 후 제를 올릴 때 진신석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7언절구의 시

39) 讚曰(권5 月明師兜率歌) : 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간의 소 원을 성취시켜 주는 주술적 노래임을 암시

월명사가 향가를 지어 죽은 누이를 극락왕생케 하고, 피리를 붙여 달을 멈추게 하였다는 7언절구의 시

40) 讚曰(권5 善律還生) : 현생의 인연에 따라 차세의 운명이 결정된다 는 내용

望德寺 스님 선율이 六百般若經 조성을 다 이루지 못하고 陰府에 불러 갔었는데, 염라대왕이 願을 다 마치도록 이승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41) 讚曰(권5 金現感虎) : 인간은 윤회한다는 것을 증명

원성왕대 김현이 탐돌이를 하다가 인간으로 假化한 호랑이를 만나 인연을 맺었으나, 緣이 다하여 헤어졌다는 7언절구의 시

42) 讚曰(권5 朗智乘雲 普賢樹) : 고승대덕의 신통한 이적

낭지사는 智通과 원효의 스승으로 구름을 타고 중국 靑涼山에 가서 講을 듣고 올 정도의 신통한 스님이었다는 7언절구의 시

43) 讚曰(권5 緣會逃名 文殊帖) : 스님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

명취산 고승 연회가 국사로 선입되자 서령으로 도망갔으나, 文殊大聖과 辨才天女가 나타나 중생제도를 권했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44) 讚曰(권5 惠現求靜) : 혜현의 뛰어난 강론과 독실한 참선을 칭찬

백제 고승 혜현은 강론에 능했으며, 말년에는 달라산에서 정좌하다가 입적했다. 그러나 사후에도 그의 허만은 붉고 돌처럼 굳어 변치 않았다는 7언절구의 시

45) 讚曰(권5 信忠掛冠) : 신라시대 명문대가의 자제들이 머리를 깎고 사문의 길로 들어섰음

효성왕과 경덕왕의 총애를 받던 신충은 沙門이 되어 단속사에서 대왕의 복을 빌었다는 7언절구의 시

46) 讚曰(권5 永才遇賊) : 세상살이에서 물욕이라는 것은 티끌에 불과함을 강조

영재는 남악에 은거하기 위해 대현령을 넘다가 도적을 만났으나, 도적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회개하여 그의 문도가 되었다는 7언절구의 시

47) 讚曰(권5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 인간의 과거·현재·미래는 개인이 지은 연애 의하여 윤회함을 암시

대성이 前生에 복을 짓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貨金으로 받은 땅 2

묘를 시주하고, 죽은 후 金文亮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다시 佛事를 일으켜 來世의 복을 지은 행적을 기린 7언절구의 시

「대당태평송」으로 알려 있는 太平歌(가제)(권1 眞德王)는 신라 28대 진덕여왕이 친히 당 태종을 예찬하는 글을 짓고, 비단에다 이 가사로 무늬를 놓아 당나라에 바친 작품이다. 사대의교적인 성향이 짙게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군주로서 이 정도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라 한문학의 수준을 잘 알려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仁德은 일월과 같고/運數는 요순보다 낫다/깃발은 어찌 그리 빛나며/음악은 어찌 그리 우렁찬가”라는 구절에서 국가로서의 체제가 완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순박한 풍성은 幽明을 받았고/원근에서 모두가 吉祥을 바친다/춘하추동 玉燭이 조화되고/일원성신은 만방을 두루비친다/태산에서 재상을 내리고/황제는 충신을 등용한다/삼황오제의 덕을 이루니/당나라 황도 영원히 빛나리”라는 구절에서는 守成의 준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왕업이 오래오래 지속될 것을 예찬하고 있다. 이 노래를 접한 당태종은 진덕여왕을 鷄林國王으로 봉하고, 인질로 잡아간 金欽純을 방면했으니, 문장 자체로서도 당태종을 감동시킬 만한 명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찬류 50편 중 인용 2편을 제외하고 모두 창작이다. 그 형식은 4언4구 1수, 4언8구 1수, 5언절구 1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7언절구로 되어 있다. 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7언절구로 되어 있다시피 삼국유사 편찬시 찬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찬시를 덧붙였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기사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볼 때 문학적 찬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성격이 짙은 사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배경이 되고 있는 기사 부분을 병행 고찰하지 않으면 찬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찬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은 발견되지 않는다.⁶⁾ 그리고 특히 일연이 편찬했다고 밝힌 권5

6) 이런 점에서 필자는 김주환이 그의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에서 논한 “내용이 지리하거나, 앞의 내용과 중첩된 인상을 주지 않는다거나, 불력의 영험과 이적 등을 감동있게 읊었다”는 평가에 대하여 동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의 찬들은 기·송구는 가사 내용의 압축이고, 전·결구는 일연의 생각을 범문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타 작품과 비교하여 변별성과 문학성이 발견된다. 일연의 사찬 중 몇 작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을 가리어서 새 그림에 향피우고/재 풍양 차릴 때는 아는 중을 불러온다

이러므로 비파암의 밝은 달도/때때로 구름 덮혀 못에 아니 비친다.
(권5 진산수공조)

바람이 돈을 날려 간 누이에게 보내고/젓대 소리 밝은 달 흔들어 嬋娥를 머물렀다

도솔촌이 멀다고 말하지 마라/큰 스님 꽃 한가지 노래 한 곡으로 맞았네(권5 월명사 도솔가조)

속세에 살면서 오래 숨을 수 있나/주머니 송곳이 드러나는 걸 어찌라
뜯았 면꽃이 잘못된 인연이지/구름 속 푸른 산 아니 깊다 하리까(권5 연화도명 문수첩)

3.3. 시가류

시가는 사와 악부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삼국유사> 소재 대부분의 한시가 독자적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만 그 기능을 발하는 삽입시라는데 한계성이 있다.

<삼국유사>에는 시류 11편, 가류 3편이 있는데, 시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시이다. 이들 작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時人作詞曰(권1 桃花女 鼻荊郎) : 인용

비형량은 귀신을 부려 여우로 변한 吉達을 잡아 죽이는 신비한 재능이 있었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비형량을 예찬하는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출입문에 붙여 놓고 귀신을 쫓았다는 기록을 볼 때, 이는 향가를 5언절구의 한시로 번역한 작품이고, 향가 고유의 주술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래

라고 생각된다.

2) 居仁作詩訴于天(권2 眞聖女大王 居陋知) : 인용

뜻있는 자가 다라니로 은어를 지어 진성여왕의 실정을 비판하자 무고히 왕거인을 의심하여 투옥하며, 거인이 억울함을 7언절구의 시로 지어 하늘에 호소하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그를 사면케 했다는 내용이다.

3) 漢南管記彭祖遯留詩云(권3 前後所將舍利) : 인용

보요선사와 그가 창건한 해룡왕사의 내력을 함축하고 있는 7언절구의 시로, 이 역시 산문 속에서만 그 진가를 발하는 삼입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 因投詞曰(권3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桓桓朴朴) : 인용

수행하는 달달박박을 묘령의 여인이 석양에 찾아가 유숙을 청하며 부른 노래를 7언절구의 시로 번역해 놓은 작품으로, 단순한 대화 내용에 불과할 뿐 문학성은 없다.

5) 因投一偈曰(권3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桓桓朴朴) : 인용

달달박박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은 여인이 다시 노닐부득을 찾아가 유숙하기를 원하면서 던진 5언율시의 불교가요(偈)인데, 후반부 “제워달라 함은 산 속에서 길 잃은 것이 아니라/스님을 인도하려는 것/다만 나를 받아들이길 뿐/누구나고 묻지를 말라”라는 내용처럼 인근에서 수행하고 있는 달달박박에게 던진 노래에 비해 다소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표현상으로는 개라고 했지만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불교문학인 개로서의 문학성은 부족하고, 산문 속에서 대화 이상의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시라고 생각된다.

6) 福乃作偈曰(권4 蛇福不言) : 인용

석가모니불처럼 나도 蓮花世界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7언절구의 시

7) 嘗作贈內詩(권5 김현감호) : 인용

도징이 아내에게 바친 5언절구의 시이다.

8) 乃吟曰(권5 김현감호) : 인용

도징의 처가 남편의 시에 화답한 5언절구의 시이다.

어플 두 편의 시는 산문 속에 있는 삼입시의 기능을 잘 말해 주고 있는데, 주인공의 감정을 압축하여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산문이 가지는 느슨함을 극복하고 긴장감을 고조시켜 이야기의 템포를 빠르게 하거나, 시간을 압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삼입시는 자체적으로 자족성을 가지기보다는 산문 속에서만 그 시의 빛을 발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琴瑟의 정은 중 하나/산림의 뜻이 스스로 깊었도다/항상 변하는 시절 근심하여/백년의 마음 외로이 깊어졌노라”라는 도정 처의 시를 산문에서 분리하여 감상할 때 그 의미를 쉽게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9) 解曰(권5 月明師兜率歌) : 인용

이는 월명사가 경덕왕의 청을 받고 지은 향가 [도솔가] 를 7언절구의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다른 향가와는 달리 한시가 병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도솔가를 해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노래를 부르자 日倜가 사라지므로, 경덕왕이茶具와 水晶念珠를 하사하였고 한 점으로 머루어, 향가는 인간의 요구를 절대자에게 회구하는 주술가임을 알 수 있다.

10) 其篇尾述偈云(권5 良智乘雲 普賢樹) : 인용

원효가 朗智의 명을 받아 初章觀心論과 安身事心論을 지어 전하면서 바친 7언절구 계송인데, 가는 티끌로 鷲岳을 돕고 가는 물방울로 龍淵을 보태듯이 미력이나마 대사를 도와 불교의 흥포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11) 有記二師之遺美(권5 包山二聖) : 창작

풀뿌리로 배를 채우고 나뭇잎을 걸치고, 현 자리에 누워 세상 욕심 버렸던 두 스님의 자취가 온데 간 데 없다는 내용의 7언10구 고시이다.

12) 時神作歌曰(권4 心地繼祖) : 인용(?)

심지가 진표율사의 佛骨 簡子を 던져 불안할 장소를 정하자, 함께 있던 산악신이 7언절구의 노래를 지어 바친 것이다. 이 노래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복하여 압축한 것에 불과할 뿐 독립성은 없다. 이 노래가 없다

고 하여 전체적인 문맥 전달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말로만 산악신이 지었다고 하였지 실제로는 이 글을 찬한 사람의 작품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13) 衆人唱海歌 詞曰(권2 水路夫人) : 인용

해룡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데려가자, 순정공은 한 노인의 충고를 받아 들여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부인을 돌려 달라고 부른 노래인데, 후에 7언 절구의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이 역시 이미 앞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루어진 후 제시된 시여서 사건의 긴장감 조성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14) 歌之云 (권2 가락국기) : 인용

文廟朝 金官知州事가 지은 가락국기에 실려 있는 장단구(4445) 노래이다. 이는 김수로왕이 탄생 이전에 직접 지어 자신이 통치할 장소에서 9간 등에게 봉우리의 흙을 파서 모으며 부르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신령스럽게 여기는 동물에게 인간의 갈망을 회구한 토데미즘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배경설화와 함께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지며 문장 속에서 살아숨쉬고 있는 작품으로, 신령스러운 동물에 인간의 명제를 회구하는 토데미즘 사상의 원형으로 여겨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시가류 작품은 5언절구 3편, 5언율시 1편, 7언절구 8편, 7언고시 1편, 장단구 1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산문 속에 살아숨쉬는 삼입시이기 때문에, 독립된 작품으로 그 시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즉 산문 사이에서 앞 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노랫말 제시어는 1)作歌型, 2)作詩型, 3) 偈曰型으로 구분된다. 작가형은 대체로 향가로 불려진 것을 의미하는데, 노래의 가사 부분을 지칭할 때 作詞·投詞·解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작시형은 한시 형태로 창작한 것을 의미하는데, 作詩·窟詩·吟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개알형은 한시 형태를 띠고는 있

지만 작자는 승려요 그 내용이 法文과 話頭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偶日·作偈·述偈·有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결 론

이상에서 보다시피 <삼국유사>에는 논변류 9, 주소류 1, 서독류 3, 서발류 3(서 1, 발 2), 전장류 7(승전 3, 사전 3, 열전 1), 비지류 1, 잡기류 11(기 5, 사지 3, 문 1, 록 1, 제서 1), 잠명류 1, 송찬류 53(송 1, 찬 52), 시가류 14(시류 11, 가류 3), 도합 102 편의 한문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중 찬자의 창작으로 생각되는 작품이 51편, 기존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 51편인데, 창작은 논변·찬류·서발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문체의 경우는 거의가 전승되고 있는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찬자의 창작물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인용 문헌도 당대에 전하던 작자미상의 창작물이고, 이들 작품이 <삼국유사> 편찬 당시 한문학의 수준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창작으로 인정되는 작품들도 산문과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문장이어서 독자성을 가진 문학적 논과 찬이 없다는 한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서독류, 서발류, 전장류, 비지류, 잡기류 등에 문학적 향기가 짙은 작품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삼국유사>는 역시 영성한 한국한문학사를 고려해 볼 때 고대한문학의 보고라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잠정적 결론은 <삼국사기> 소재 한문학 작품과 비교가 이루어질 때 좀더 확고 부동한 학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후속적인 연구를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 삼국유사(권상로 역, 동서문화사, 1978.)
삼국유사(이가원 역, 태학사, 1998.)
서거정, 東文選
서사증, 文體明辨
소 통, 文選
오 늘, 文章辨體
요 내, 古文辭類纂
유 협, 文心雕龍
고운기, 삼국유사의 일연 찬시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승호, 한국승전문학연구, 민족사, 1993.
김용옥, 三國遺事引得, 통나무
김주한,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민병수,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1996
백신숙, 일연의 찬시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신동훈, 설화와 불심으로 민족사를 되살린 큰 작가(민족문화사연구소 편,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안대회, 조선시대 문장관과 문장선집(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1997.)
이가원, 한문신강, 신구문화사, 1970.
이경선, 동문선(한국의 명저, 현암사, 1970)
이남영, 삼국유사와 승 일연과의 관계 고찰(삼국유사연구논선집1, 백산자료원, 1986.)

- 이동근, 삼국유사의 한문문체적 검토, 우리말글 16집, 우리말글학회, 1999.
- 이동환, 동문선의 선문방향과 그 의미(한국고전심포지움2, 일조각, 1985.)
- 이종건·이복규, 한국한문학개론, 보진재, 1991.
- 이종찬, 한문학개설, 이우출판사, 1989.
- 인권환, 일연론(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79.)
- 인권환, 고려시대불교시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정대구, 삼국유사 글쓰기 방식의 특성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정대구, 삼국유사와 중·일 불교전기문학의 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0.
- 정요일·박성규·이연세, 고전비평용어연구, 태학사, 1998.
- 최신호, 한문강화, 현암사, 1977.
- 허홍식, 동문선의 편찬동기와 사료가치(한국고전심포지움2, 일조각, 1985.)
- 황패강, 일연작품집, 형설출판사, 1977.

A Study on Sino-Korean Literary Works in Samgugyusa

Dong-Keun Lee

(Abstract)

There are 102 works [argumentation(논변류) 9, petition(주소류) 1, epistle(서독류) 3, foreword & final sentence(서발류) 3, biography(전장류) 7, epitaph(비지류) 1, miscellaneous writing(잡기류) 11, moral(잠명류) 1, praise(찬송류) 53, poetical composition(시가류) 14] in the Samgugyusa(三國遺事).

The creative works are 51. and These are concentrated on argumentation · praise · foreword & final sentence. These are invaluable in the point of ancient Chinese work of Korea.

There are literary shortage on the absence of completion in the creative works. but there are master-piece in the epistle, foreword & final sentence, biography, epitaph, miscellaneous 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valuable after research on Chinese works in the Samgusagi(三國史記)